

보증센터 현판식 개최



조합은 지난 7월 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에서 보증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터넷 업무를 전담하는 보증센터(센터장 김동탁)를 신설하고 지난 7월 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석 이사장과 이상일 운영위원장(협회 회장), 협회 정달홍 부회장, 연구원 이연구 원장을 비롯하여 조합 고태식 비상임 감사, 김경희 전무, 하영진 경영상무, 정도현 관리상무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기석 이사장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조합원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증센터를 개설했으며, 업무효율성 제고 및 조합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조합 임직원 모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일 위원장은 “보증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조합원사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우량 공제조합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표이사 등 개인연대보증 제도 폐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지난 5월 24일 제116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인연대보증 제도를 폐지를 의결하고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은 금융기관의 연대보증폐지 등 금융환경변화와 개인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대표이사 등 개인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연대보증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조합 대표자의 책임경영과 보증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인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민법 개정에 따라 개인연대보증인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야하는 대면약정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어 조합원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 약정을 통해 업무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합은 리스크관리차원에서 개인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발맞춰 신용정보활동 등 보증사고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구축, 예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